



오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전동성당과 한벽문화관에서 '전주 비바체 실내악 축제'가 열린다.

세계적인 음악축제를 목표로!

'전주 비바체 실내악 축제' 31일부터 전동성당·한벽문화관에서 개최
서울대 음악과 최은식 교수·강창우 지휘자·솔리스트 30인 참여

글로벌 문화도시인 전주에서 클래식음악축제가 열린다.
(사)비바체 뮤직 페스티벌과 예코뮤직은 오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전동성당과 한벽문화관에서 '전주 비바체 실내악 축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최은식 서울대 음악과 교수와 강창우 지휘자를 중심으로 한 이번 축제는 이미 클래식계에서 잘 알려진 Just Vivace Festival(저스트 비바체 페스티벌, 2008년 창단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실내악 축제, 2017년에 시작돼 올해 3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 실내악 축제는 첫날 오후 7시 30분 전동성당에서 헨델(하버스 편곡)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파사칼리아로 막을 올릴 예정이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일반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모차르트' △모차르트의 제자로 알려

진 위대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훔멜' △영국의 낭만주의 작곡가 '레이프 본 윌리엄스' △오스트리아 낭만파이자 가곡 작곡가인 '후고 볼프' △미국의 애블라치아의 봄으로 풀리처상을 받기도 한 '이론 코플랜드' 등 다양한 클래식 곡들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축제는 문화도시 전주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전주 시민들에게 클래식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각 분야에서 최고의 솔리스트로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연주자들이 솔로가 아닌 앙상블을 연주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축제에는 음악감독 최은식(서울대 음악과 교수)을 중심으로 지휘자 강창우, 바이올리니스트 김현미·이석중·김덕우·송지원·노윤정·정진희·유성민·김정연·김다미, 비올

리스트 강윤지·이수민, 첼리스트 이정란·심준호·이상우·최경은·홍은선, 베이스리스트 조영호·이영수·이정우·슬라보미르 그랜드, 피아니스트 박종화·김태형·진영선, 클라리네티스트 임상우, 플루티스트 나재원, 바수니스트 김형찬, 소프라노 강혜정, 하피스트 박라나 등 총 30명의 연주자가 참여한다.
이 가운데 세계를 무대로 삼는 젊은 연주자들로 손꼽히는 김다미·심준호·김태형, 독일 최고의 베이스리스트로 평가 받는 슬라보미르 그랜드 등이 참여하는 점도 눈여겨 볼만 하다.
전주 시민들에게 한여름 밤 수준 높은 음악을 제공할 이번 행사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사배원 전주시 문화정책과장은 "해를 거듭 할수록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전주 비바체 실내악 축제는 팔초부르크 페스티벌, 탕글우드 페스티벌 같은 지역 이름을 건 세계적인 음악 축제를 목표로 한다"면서 "문화도시 전주를 각 지역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대, 시민문화강좌 '사진으로 역사 읽기' 성료

전주대 인문학국플러스(HK+)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이하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와 (사)한국고전문학연구원은 지난 6월 3일부터 7월 22일까지 총 8주간에 걸쳐 진행한 시민문화강좌 '사진으로 역사 읽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문화강좌는 전주의 젊은 사진가 장근범 대표(사진아카이브8)를 초청해 어제를 기록하고 내일을 예비하는 '사진과 인간의 역사'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나누는 귀한 기회가 됐다.

강의에 참여한 수강생은 "기존의 지식 전달만을 위한 인문 강의가 아닌 접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관련 사진을 보고, 들으니 매우 흥미로웠고, 8주간의 시간이 짧게 느껴질 만큼 좋은 강의였다"라며 "기회가 된다면 1~2차례 더 듣고 싶다"라고 말했다.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장 백진우 교수는 "이번 강좌를 시작으로 음악·사진·영화 등 익숙한 문화를 인문학과 접목하여 다양한 시민문화강좌를 제공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폭넓고 유익한 주제의 인문학강좌와 인문 체험을

지속해서 기획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는 8월 12일부터 진행하는 '온다라 인문 아카데미' 수강생 및 '문·활·탄·문화재 활용가의 탄생'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온다라 인문 아카데미'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문·활·탄·문화재 활용가의 탄생'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팀 공모전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063-220-3201~3)로 문의하거나 8월 5일부터 전주대 HK+사업단 홈페이지(www.jiac.kr/hk)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정읍시예술회관에서 내일 베르디 걸작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공연

베르디의 3대 오페라 중 하나인 '라 트라비아타'가 내일 오후 4시 정읍시예술회관에서 공연된다.
일렉산더 뒤마 피스의 소설 '동백꽃 아가씨'를 바탕으로 한 '라 트라비아타'는 화려한 볼거리와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오페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고 있는 작품이다.
'라 트라비아타'는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파리 사교계의 꽃인 비올레타와 젊은 귀족 청년 알프레도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현대인들의 사랑과 이별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해석해 그려냈다.
'라 트라비아타'는 지난해 한국 오페라 70주년 기념작으로 한국과 러시아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이번 공연에서도 서울 오페라 앙상블의 예술감독인 연출가 장수동을 주축으로 비올레타에 정꽃님, 알프레도에 박기천 등 한국 최상급 출연진과 스템이 함께해 원작에 충실한 무대 배경과 음악으로 강렬한 앙상블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객과 공감하는 공연을 위해 자막으로 가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공연은 8세 이상 관람할 수 있다. 관람료는 전 좌석 1만원이다.
정읍시민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는 50%



할인된다. 입장권은 티켓링크(☎1588-7890)를 통해 26일까지 예약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공연은 2019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8월에는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의 '시네마 클래식 KOREA'가 공연될 예정이다.
/정음=김대환기자

"윤도 보면서 고창사람 자부심 느껴"

고창군 청소년이 윤도장 소개 영상 제작해 '눈길'

고창지역 청소년들이 지역의 문화유산인 윤도장의 소개 영상을 직접 기획·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고창군 성내청소년문화의집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역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15명의 아이들은 '내고장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으로 지난 5월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제110호 윤도장 김중대 선생을 찾아 윤도 이론교육과 체험관 주변 환경정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아이들이 만든 윤도장 홍보영상은 SNS로 공유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윤도장 김중대 선생을 인터뷰하고 윤도에 대한 설명과 제작 과정을 영상으로 담았다.
일부 영상이 짧기도 하고, 잡음도 섞여 있지만 그것마저도 순수하게 느껴지며 또래 친구들은 물론, 학부모와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SNS로 퍼나르고 있다.
여기에 고창·수원 지역청소년 교류활동에서도 아이들이 만든 윤도장 홍보영상이 상영되면서 내고장 문화유산 지킴이 홍보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김상훈(성내중2)군은 "항상 남쪽을 가



리키는 지남철(指南鐵) 바늘이 신기했다"며 "장인정신으로 한뼘한뼘 정성껏 만들어진 윤도를 보니, 자부심이 느껴졌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 성내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힐링을 꿈꾸다'(원예치료), '천연으로 아토피 잡이불까'(환경보전) 상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해설사'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운영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